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 (8-끝) 효돈중학교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하루”

양서류와 파충류 이야기
아이들 호기심에 불 붙여
처음 본 뱀에 약자지킬
보고 만지고 사진 찍고...
졸업 앞뒤편 추억만들기 분주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이랑 숲길을 걷는 게 너무 행복해요.” “중학교 졸업을 앞뒤편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숲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 하나씩을 선물했다. 기말고사를 마친 아이들은 곧고 높게 뻗은 삼나무 숲을 걸으며 1년내내 함께 지낸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숲길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의 공간에 저장했다.

효돈중학교 전미희·강소연 교사와 3학년 학생 45명이 지난 13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애리 소재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사려니숲길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한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숲학교'를 찾았다.

아이들은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양경식 선임연구원과 이승학 박사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제주의 양서류·파충류와 자생버섯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누룩뱀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양경식 연구원은 제주도통농은 물론 각종 개구리와 뱀, 붉은귀거북에 대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풀어내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뱀공이는 예전에 전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멸종 2급 위기에 몰렸어요. 두꺼비는 개구리와는 달리 점프하는 경우는 로또가 다섯 번 연속 당첨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적어요. 포클레인(종장비)이 땅을 파는 속도보다 뱀공이가 달아나는 속도가 느리다는 말이죠. 그러나 다행하게도 제주에는 엄청 많아요. 제주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이기 때문에 보호종으로 지정된 거죠.”

제치 있는 입담 속에 자연보호의

소중함도 담아내며 아이들의 관심을 충족시켰다.

이어 체험관을 찾아 아이들에게 직접 누룩뱀을 집어 보여주며 만져보는 기회도 줬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겁을 내기도 했지만 웅기 내 만져보며 신기해했다.

김도호 군은 “태어나서 처음 뱀을 직접 손으로 만져봤는데 너무 좋아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라며 “오늘 교육이 너무 유익하고 그동안 특별한 진로계획이 없었는데 생물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유준 군은 “두꺼비를 직접 손으로 만졌는데 눈으로 볼 때는 나무껍질처럼 거칠 것만 같았는데 너무 미끈해서 놀랐다”며 “처음해본 경험인

데 아주 특별했다”고 전했다.

이승학 연구원은 달걀버섯, 노랑무당버섯 등 예쁜 버섯과 흰오징어버섯, 세발버섯, 끝검은뱀버섯 등 못생긴 버섯, 그리고 테두리방귀버섯, 딱정벌레 동충하초 등 특별한 버섯까지 평소 접하지 못했던 학문적 상식을 아이들에게 들려줬다. 특히 제주도의 농경신인 재석활망의 밥그릇처럼 생겼다는 쭈주름참잔버섯을 설명하며 그릇 안에 포자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는 신비한 이야기에 아이들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다.

아이들은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일정을 마치고 차량으로 사려니숲길로 이동해 숲길 걷기에 나섰다. 대략 2시간 정도 숲길을 오가며 그동안 공부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었다. 오랜만에 숲에 나선 터라 아이들은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동영상 찍고 숲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겼다. 아이들은 숲길에서 마셨던 생수병을 사려니숲길 탐방안내소에 있는 캔·페트수거기에 넣고 포인트 적립을 하는 등 직접 체험하며 자원재활용의 의미도 되새겼다.

현예리·김유림·현연영 양은 “난생 처음 뱀도 만져보고, 숲길도 걷고, 강의를 들으며 개구리도 먹어 보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도 했다”며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비한지를 알게 된 하루였다”고 말했다.

백금기자 haru@ihalla.com

노상주차장 무인결제시스템 첫 선

철십리특화거리 등 3곳
번호 인식·정산 일체형
향후 수개월간 시범운영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등 3곳에 노상주차장 무인결제시스템이 제주 처음으로 구축됐다.

서귀포시는 중정로, 태평로, 철십리 구간에 노상주차장 회전을 높이고 유료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주차요금 무인결제시스템을 구축, 지난 1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설치구간은 아랑조을거리음식특화거리 3번가와 4번가, 천지연폭포 진입부분, 철십로 음식특화거리 일부 구간(서귀포시협약) 400m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가 유치한 것으로, 총 4억원(국비와 도비 각 2억원)을 투입해 무인정산기 23대를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읍면동 수요조사와 지역상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은 차량번호인식기와 요금정산기가 한개의 기기에 설치된 일체형으로, 국내에서는 세종시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구간에 설치 운영중이다.

시는 도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무인결제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보고, 연말까지 시스템 운전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요금정수까지 수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징수시점은 별도 고시한다.

시는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간에 대한 상권 활성화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공사와 도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과 지역상인회 등에 주차장 정보와 무인스마트결제시스템 기기작동법 등을 안내하는 별도 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1호 골프장 '제주CC' 결국 매각

부동산업체 531억에 인수

제주 1호 골프장인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이 결국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에 매각됐다.

13일 금융 및 골프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제주CC 관계인 집회에서 한프이앤씨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날 진행된 회생계획안 표결에서 담보채권자의 92%, 회생채권자의 77%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한프이앤씨는 1순위 담보 채권자(260억원 보유)로 531억원 가량에 제주CC를 인수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주CC의 공매 대상은 토지 52필지, 건물 12동 등 전체 감정평가액이 1295억원 가량이다.

한프이앤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채권자 50% 이상 동의

를 미리 얻어 회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구조조정제도의인 사전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966년 문을 연 제주CC는 경영 악화로 인해 2013년 8월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4차례에 걸쳐 경매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평화나비 “문화상 안 폐기”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지난 13일 제주시 노형동 주재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화상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이지 돈이 아니다”라며 “문 의장은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권리로 없애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삼민기자



제주도교육청 정시 입학설명회 15일 제주도교육청이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마련한 2020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진학 상담 및 컨설팅에 참가한 수험생들이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흥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급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